

희성엔겔하드, 폐촉매 정제기업 설립

현대차·NECC와 공동출자 지분 55.1% 보유 ... 2005년 10월 본격가동

현대자동차(대표 정몽구)와 희성엔겔하드(대표 정성희), 일본 NECC(미국 엔겔하드그룹 계열기업)가 공동 출자해 폐촉매 정제기업인 희성피엠텍(대표 손대성)을 설립했다고 10월7일 발표했다.

자본금 60억원의 합작기업은 폐차나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폐촉매 속의 고가 백금계 귀금속(PGM1)을 친환경기술(플라즈마 아크 용융기술2)로 정제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다.

지분율은 각각 현대자동차 19.9%, 희성엔겔하드 55.1%, NECC 25%이다.

희성피엠텍은 희성엔겔하드 반월공장 안에 정제공장을 신축한 뒤 필요한 설비를 가설해 2005년 10월부터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4/10/08>